



2026. 9. 22.(화)
 보도시점 현장 방문 시작(15:00) 이후 배포 2026. 9. 22.(화)

정은경 장관, 첨단재생의료 치료 1호 현장 찾아 환자 격려

- 여의도성모병원 방문, 치료 추진경과 점검 및 환자 면담 등 진행 -

보건복지부(장관 정은경)는 9월 22일(화) 15시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을 방문하여 국내 최초로 승인된 **첨단재생의료 치료**의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관련 **시설 및 운영 현황** 등을 확인했다.

이번 방문은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 도입('25.2.) 후, **국내 최초로 승인된 첨단재생의료 치료**가 실제 환자에게 적용되는 것을 계기로 **현장의 준비 상황**을 직접 살펴보고 **환자·의료진을 격려**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이 치료는 항암치료 후 완전관해* 상태이지만 재발 위험이 높은 EBV 양성 림프절외 NK/T세포 림프종 환자를 대상으로 본인에게서 유래한 EBV 항원 특이 면역세포를 활용한 치료이다.

* **'완전관해'**란, 현재 검사로 확인 가능한 암의 흔적이 모두 사라진 상태임. 다만, 아직 눈에 안 보이는 미세한 암세포가 남아 있을 가능성은 있으므로 추적 관찰을 필요로 함

<제1호 승인 첨단재생의료 치료 개요>

- **(치료계획명)** 치료 후 재발 가능성이 높은 EBV 양성 림프절외 NK/T세포 림프종 완전관해 환자에게 자가 면역세포치료제 VT-EBV-N을 투여하여 재발을 방지하고, 장기 생존을 유도하는 **첨단재생의료 치료**
- **(투여기간)** 자가유래 EBV 특이 T세포 정맥투여, 4주간 주 1회 투여 → 4주 휴약 → 4주간 주 1회 투여(총 8회, 12주)
- **(실시기관)**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
- **(실시 책임자)** 혈액내과 전영우 교수
- **(대상질환)** 완전관해 상태의 혈액암(EBV 양성 림프절외 NK/T세포 림프종)
- **(대상자수)** 15명
- **(치료실시 기간)**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의결·통보 후 2년(연장가능)
- **(치료비용)** 76,207,178원

* 치료 시 4,000만 원 납부, 이후 5년 이내 재발하지 않을 시 3,000만 원 추가 납부, 단 치료 후 5년 이내 재발 시 비용 전액 환불

이날은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치료를 위한 **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준비 현황**과 환자에게 첫 치료를 실시하기까지의 **추진 경과** 등을 살펴보고, 관련된 **병원 시설**을 둘러보았다. 또한, 첫 등록 환자를 만나 **치료의 소감** 및 **애로사항**을 청취하고, 치료를 개발하고 담당하는 **연구진과 의료진**을 만나 그간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격려했다.

정은경 장관은 “**첨단재생의료 치료**는 **중대·희귀·난치질환**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**새로운 치료 기회**가 될 것이다”라며, “이번 **제1호 치료**가 **희귀 혈액암** 환자의 **재발을 예방**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”라고 밝혔다. 이어 “**치료의 안전성**을 확보하는 가운데 환자의 **치료 접근성**을 **확대**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과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”라고 덧붙였다.

<붙임> 현장방문 개요

담당 부서	첨단의료지원관 재생의료정책과	책임자
		담당자



일시 · 장소

- 9.22.(화) 15:00~16:00, 여의도성모병원

참석

- (보건복지부) 장관, 첨단의료지원관, 재생의료정책과장

○ (여의도성모병원) 진료부원장, 행정부원장, 간호부장, 응급의료센터장, 실시책임자(전영우 교수), 세포처리시설 대표(바이젠텔) , 관계자 등

내용

- 치료 추진경과 점검, 관련 시설 확인, 첫 환자 인터뷰, 연구진 격려 등

세부일정

시간		내용
15:00~15:05	5'	인사말
15:05~15:30	25'	치료 추진경과 브리핑
15:30~15:40	10'	질의응답
15:40~15:45	5'	병원 시설 확인
15:45~15:55	10'	첫 등록 환자 인터뷰
15:55~16:00	5'	마무리